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훈



회순 박순철

# “생산자와 소비자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놀러오세요”

### 조례호수공원점 ‘순천로컬푸드 페스티벌’ 개최



순천로컬푸드에서는 20일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로컬푸드 직매장 조례호수공원점 주차장에서 ‘순천로컬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로 우리 지역 농산물을 도시민들께 홍보하고 직매장을 찾아준 소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행사장에 오면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여 판매하는 풀리마켓에서 천연제품, 친환경 소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천연비누·모기 퇴치제 만들기 체험과 우리 쌀로 빚은 막걸리, 파전, 주전부리 등 다양한 먹거리를 맛 볼 수 있다.

특히, 로컬푸드 토크 콘서트는 ‘순천로컬푸드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소통하고, 판소리·난타 공연 등도 곁들여져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저녁 8시부터는 안전 먹거리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지역 농산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푸드 주식회사’를 야외에서 무료 상영하여 가족과 함께 한여름 밤의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로컬푸드를 통해 우리 사회에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애쓰는 농업인들의 수고로움을 알고 관심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순천로컬푸드 직매장 ‘조례호수공원점’은 신선 농·수·축산물, 가공품, 반찬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2층 카페 이음은 쾌적한 넓은 공간과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음료, 팔방수 등 개발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 광양시, 시민의 목소리 반영 주민참여 예산학교 개최

광양시는 최근 시청1층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참여 예산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2018년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좋은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 예산학교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시민,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방예산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예

산학교에는 (사)지역미래연구원 참여예산센터장 오미덕 강사를 초청해 시의 재정현황과 예산 편성절차 등 2018년 시의 실행살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예산 편성과정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의, 참여방법에 대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쉬운 설명으로 진행돼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석한 정현복 광양시장은 “그동안 시민소통과 참여행정을 통해 ‘시민 중심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운영해 왔다”며, “앞으로도 해피데이, 현장행정의 날,

시정공감토크뿐만 아니라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오는 8월 말까지 2019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제안사업을 각 읍면동과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고 있다.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주민제안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사업은 사업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순천시, 밤나무해충 친환경 항공방제

### 산림청과 공동 추진...밤 생산농가 노동력·생산비 절감

순천시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친환경 약제를 이용하여 승주읍 등 밤 재배단지 750ha에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밤 재배인구의 노령화 및 기계화 작업이 어려운 재배지 여건을 고려하여 산림청과 순천시가 공동 추진하는 이번 항공방제는 밤 생산농가의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해 줄 것으로 순천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 항공방제의 집중 방제대상

해충은 복숭아명나방이며 밤나무의 결실과 품질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해충으로 친환경 품질 인증을 받은 약제를 사용하여 안전 먹거리로 밤 생산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시는 항공방제 기간 동안 방제구역 2km이내 지역의 가축방목과 입산 및 산나물 채취를 금지하고 양봉·양잠·양어장 보호조치 등 피해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

이강진 순천시 산림소통과장은 이

번 ‘항공방제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생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해 고품질 밤의 생산력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항공방제 일정은 19일 외서, 송광, 20일 낙안, 21일 상사, 별량, 향동, 승주, 22일 황전, 23일 황전, 월동, 주암 순서로 방제행진 계획이며, 기상상황과 헬기 지원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인근 주민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일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찜통더위 물러나라”...나주시, 폭염 총력 대응

### 폭염대책 T/F운영, 취약계층 인명·재산 피해 예방 주력

나주시가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과 유사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폭염대응 종합계획’을 수립, 무더위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시는 분야별 폭염대책 추진을 위해 안전총괄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폭염대비·대응 T/F팀’을 구성하고, 폭염대책기간(6.1~9.30) 폭염 취약계층을 비롯한 주민들의 인명·재산 피해예방과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T/F팀을 ‘상황관리반(안전총괄과)’, ‘건강관리지원반(사회복지과·보건소)’, ‘시설관리반(읍·면·동 해당부서)’ 등 3개 반으로 편성하고,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관리, △재난도우미 운영, △폭염 정보 전달 및

응급체계 구축, 홍보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폭염 특보 발효 시에 사회복지사, 노인돌보기 등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49명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를 중심으로 전화(1일 2회) 또는 가구 방문(주 1회 이상)을 통해 독거노인 등 1,200여명의 폭염취약계층의 인부를 일일이 점검하는 등 폭염 전과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또 평소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고, 접근성이 좋은 관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 여가시설과 급식·종교 시설 등 596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한다.

특히 20개 읍·면·동사무소, 안전총괄과, 사회복지과 직원 1명씩을 관리책임자로 지정, 폭염 발효

시 즉각 현장에 투입해, 에어컨 신풍기 등 냉방시설을 점검토록 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무더위쉼터 596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에어컨 100%설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한 나주시는 이날 내 운영집행 예방을 위한 물티슈, 벤틀러 1만여개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음리 마을 방송, 전광판 시 홈페이지, 실시간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폭염 주의를 당부하는 제도방송·안내, 홍보활동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를 적용해 농업, 건설·산업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장 무더운 오후 시간대(14~17) 휴식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 해 보행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한 제갈시책으로 시민의 큰 호응을 얻었던 ‘그늘 막 쉼터’도 확대 운영된다.

## 광양시, 고품질 수박(복수박) 생산 기반 다진다

### 농업인 수박재배 관한 전반적인 핵심기술 교육



광양시는 고품질의 수박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최근 수박(복수박) 품목 농업인 상설교육을 실시했다.

진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교육에는 수박 연구회와 작목반

회원, 수박 재배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은 전북 수박장인 1호인 신승 농가를 초청해 토양과 초세(식물의 생육이 왕성한 정도), 온도, 영양

병해충, 제초제 관리방법 등 수박재배에 필요한 전반적인 핵심사항을 학습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이음리 농산물 도매시장과 농식품유통공사 관계자와의 좌담회식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농산물 유통정보 제공과 농가에로서황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시는 그동안 농업인을 대상으로 감 교육을 시작으로 품목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생강과 친환경농자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농가에서 요구하는 품목별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품목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현 기술지원팀장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친환경 천연 창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